

**담당 : 홍보팀 임정수 차장ㅣ Office : 02)560-4434 ㅣ Mobile : 010-7680-8653 ㅣ E-mail : media@klpga.org**

**덕신EPC 챔피언십 우승자 김민선7 코멘트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덕신EPC 챔피언십 |
| 2 | 기 간 | 2025년 4월 24일(목) ~ 4월 27일(일) |
| 3 | 장 소 | 킹스데일 골프클럽 [LAKE(OUT) / HILL(IN)코스]  |
| 4 | 주 최 | 덕신EPC |
| 5 | 주 관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 |
| 6 | 총 상 금 | 10억 원 (우승상금 1억 8천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725야드 |
| 8 | 참가인원 | 120명 |
| 9 | 주요출전선수 | 방신실, 조아연, 김민주, 박보겸, 고지우, 마다솜, 이가영, 홍정민, 유현조지한솔, 리슈잉, 이동은, 박현경, 박지영, 배소현, 정지효, 송은아, 조혜지2지 유아이, 빠따랏 랏따놘, 짜라위 분짠, 문정민, 송가은 등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(생중계) | [1라운드] 11시 ~ 17시[2라운드] 11시 ~ 17시[3라운드] 10시 ~ 16시[최종라운드] 10시 ~ 16시 |

**◈ 최종라운드 3언더파 69타, 최종합계 11언더파 277타 우승자 김민선7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10097>

**우승 소감**

오늘 날씨 등으로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코스였는데, 무너지지 않고 플레이를 한 내가 자랑스럽다. 응원 와 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다. 감사하다.

**상금 사용처는?**

아직 생각을 못 해봤다.

**플레이할 때 압박감 있었는지?**

중간까지는 전혀 없었는데, 끝날 때쯤 와서 떨림이 느껴졌다.

**위믹스 챔피언십(이벤트대회)에서도 우승 했는데, 정규투어 우승과 느낌 다른가?**

오늘의 우승이 조금 더 뭉클하고 와 닿는다. 이벤트 대회에서 우승을 맛보고 정규투어 우승이 더욱이 간절했는데, 지금 정말 행복하다.

**올해 목표가 무엇이었나?**

차근차근 열심히 꾸준히 기량을 늘려서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올해 목표였다.

**오늘 경기에서 가장 집중한 부분은?**

큰 실수를 하지 않는 게 관건이었다. 미스를 해도 파를 잡을 수 있는 곳이 있고, 파세이브가 어려운 곳이 있는데 최대한 파세이브를 할 수 있는 곳을 놓치지 말자는 것에 중점을 뒀다.

**어떤 계기로 골프를 시작했는지?**

11살 겨울, 학교에 있는 작은 골프장에서 시작했다. 어렸을 때부터 나는 남들보다 조금 성실했던 것 같다. 하나라도 더 알아가고 습득하려고 노력하는 선수였다. 그러한 노력들이 쌓여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.

**함께 국가대표였던 방신실과 같은 조에서 경기했는데**

신실이와 같은 조에서 플레이하면 항상 분위기가 좋다. 오늘도 좋았다. 같이 대표팀 했던 친구들이랑 치면 늘 재미있는 경기를 하는 것 같다. 신실이도 끝나고 나서 정말 축하한다고 이야기해줬다.

**바람이 많이 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승한 비결?**

올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전지훈련을 했다. 그래서 고전하지 않고 편하게 경기할 수 있었다. 핀위치와 내가 있는 곳의 바람을 따로 보면서 계산했고, 원하는 바람이 불었을 때 공을 치려고 노력했다. 그리고 경기 중 나온 몇 번의 어려운 상황에서 잘 막아냈던 것이 누적되어 충분히 해낼 수 있겠다는 믿음과 자신감이 생겼다.

**이번 대회 가장 만족했던 샷은?**

아이언 샷은 다 좋았고, 드라이버도 만족했다. 전반적으로 괜찮았지만 가장 만족했던 샷을 꼽는다면, 그린 주변 어프로치가 가장 잘된 것 같다. 어프로치로 핀 옆에 잘 붙였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와도 모면할 수 있었다.

**칩 인 버디를 두 번이나 성공했는데?**

나 스스로도 칩 인 버디 두 번이 가장 인상 깊었다. 그야말로 도파민이 솟는 경험이었다. 이번 대회는 쇼트게임이 효자였다.

**다음주가 메이저 대회인 ‘KLPGA 챔피언십’이다. 오늘의 우승이 도움이 될 것 같은지?**

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. 메이저 대회를 앞두고 자신감을 갖게 해준 선물 같은 우승이다.

**챔피언 퍼트가 들어갔을 때 기분은?**

정말 떨리고 좋았다. 그 전부터 타수 차가 많이 나서 우승인 걸 이미 알고 있는데도 정말 행복했다.

**앞으로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지**

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선수가 되고 싶다. 많은 이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싶다. 골프 실력적으로는 좀 더 노력해서 LPGA에서 뛰는 선수가 되고 싶다. 올해 U.S.여자오픈 같은 큰 대회들을 경험해보고 싶다. U.S.여자오픈에 출전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해보겠다.